http://dx.doi.org/10.22784/eomun.2021..89.317
『어문론총』 제8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9

다의어 ‘알다’의 의미와 한국어 교육 방안

김정아*

<차 례>

1. 들머리
2. 연구 배경과 방법
3. ‘알다’의 의미 확장 양상
4. ‘알다’의 교육 내용
5. 마무리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알다’의 다의적 용법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알다’는 행위의 대상과 과정을 통해 의미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알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N을/를 알다’ 구성을 보이며 N에 해당하는 대상은 정보나 사실, 사람, 감정, 감각 등이다. 또한 인지 행위로서의 ‘알다’는 외부 자극을 통해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 예상하여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일련의 인지 행위 과정을 통해 ‘알다’의 의미들은 서로 유연성을 가지고 확장된다. 이렇게 의미적 유연성을 가지고 확장된 ‘알다’의 의미와 특성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교육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는지’, ‘줄’ 등과 같은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표

* 말라야국립대학교 아시아·유럽언어학과 객원교수 / piscean00@hanmail.net

www.kci.go.kr

현항목 '-는지 알다', '-을 줄 알다', '-는 줄 알다' 등을 '알다'의 다의적 용법으로 설명한다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알겠다', '알아서', '알바 아니다'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도 '알다'의 다의적 용법을 바탕으로 교수·학습한다면 인지적 개연성과 의미의 유연성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다의어, 알다, 인지동사, 한국어교육, 패턴

1.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패턴에서 나타나는 동사 '알다'의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알다'의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1) a. 이 규칙을 적용하면 1과 물음표를 더했을 때 7이 나와야 한다는 공식을 알 수 있다. <인터뷰 369 2013년 1월 1일>
b.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매운 맛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헤럴드팝 2021년 8월 11일>
c. 한 달에 한 번은 주 4일 근무…출퇴근 시간은 알아서 하세요. <머니투데이 2020년 11월 24일>
d. 자네가 이미, 오래 전에 자네 아버지를 버린 거야, 알겠어? <2021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1a)-(1d)의 예를 보면 '알다'는 각각의 패턴에서 다양한 의미로 나타난다. (1a)와 (1b)에서는 'N을/를 알다'의 형태로 쓰여 (1a)에서는 [지식을 갖추다], (1b)에서는 매운 맛을 [지각하다]를 의미한다. 연결어미 '-아/어서'와 결합한 (1c)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뜻으로 [판단하다], 선어말어미 '-겠'과의 결합한 (1d)에서는 아버지를 버렸다는 사실을 [수용]하겠느냐는 의미로 쓰였다. 이렇듯 '알다'는 결합하는 요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www.kci.go.kr

나타내는데, 이것은 '알다'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기 때문이다.

'알다'와 같은 다의어는 기초어휘[1]인 경우가 많아(이충우 1994, 문금현 2005) 대체로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게 된다.[2] 하지만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의미만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급·고급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읽기나 듣기 자료를 통해 우연히 학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다의어에 대한 학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자들은 어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어려운 어휘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사의 경우 문장에서 중심 내용이 되므로 제대로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의적 용법을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사용 빈도가 높으며 다양한 패턴에서 나타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알다'의 다의적 용법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3]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의어 교육에 대한 앞선 연구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한국어 다의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강현화(2011)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동사(보다, 가다)의 다의 분석이 많이 이루어진 가운데 대표적인 논의로는 한정일(1999), 한송화·강현화(2004), 문금현(2006), 고경태(2008), 정수진(2009), 오현정(2010), 이유경(2011), 이민우(2012), 심혜령·문정현(2015), 김용(2015), 장지수(2021) 등이 있다. 한정일(1999)은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다의어는 초급에서 학습한 기본의미가 다의어로 확장되는 것, 새로 등장한 어휘가 다의 관계 어휘로 확장되는 것, 단계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것, 한 가지 의미만 소개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문금현(2006)은 교재에서 '보다'가 제시되는 현황을 분석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 방법을 조사한 후 어휘 교육에서 일정한 규칙이나 순서에 기반해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1) 기초어휘란 이것만 가지고도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휘의 집합으로서, 이 어휘소들을 상호 조합하는 것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선정된 어휘군을 말한다(김광해 1993: 47-48).
2) 김중섭 외(2017), 한송화 외(2015)에서 '알다'는 초급 어휘로 제시되어 있다.
3) 현대 국어 어휘 빈도를 조사한 조남호(2002)의 조사에 의하면 '알다'는 전체 동사 중에서 8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어휘이다. 가장 빈도가 높은 동사는 '하다'이며 다음으로 '되다', '보다', '대하다', '가다', '위하다', '말하다'가 있다.

www.kci.go.kr

하였다. 오현정(2010)은 동사 '걸다'를 영상도식(image schema)[4]에 기반하여 일본인,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고, 이유경(2011)은 단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서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하여 목표어와 모국어에 모두 해당하는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의미들로 나누어 교육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민우(2012)는 다의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변별된다고 설명하고 변별 방식에 따라 '지시범주', '결합 문맥', '사용 문맥', '지시 문맥'의 단계로 다의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혜령·문정현(2015)은 'N을/를+보다'로 실현되는 '보다'의 의미를 분석하여 N의 어휘 등급에 따라 교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용(2015)은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은유 이론을 통해 동사의 다의성을 분석하고 기본의미와 확장의미 간의 유사성에 기반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한 단어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학습단계, 빈도, 의미 특성에 따라서 교수·학습해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고경태(2008), 한송화·강현화(2004)에서는 자주 공기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다의어를 분석하고 교육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경태(2008)는 동사의 다의적 쓰임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다'의 출현 패턴을 분석하여 실현되는 의미를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송화·강현화(2004)에서도 연어 정보를 활용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다의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빈도가 높은 일부 동사의 연어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다의성 동사들은 'N+동사'의 구조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다'는 'N을/를 보다'가 일반적이지만 '한 번만 봐 줄게', '내가 봤을 때', '보자 보자 하니'와 같은 표현들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표현들은 'N+동사'의 단순한 구조보다 훨씬 더 다양하며 특히 관습적인 표현들까지도 두루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의어 교육은 실현되는 많은 의미들을 모두 가르치는 것보다 다양한 의미들의 용법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제시하고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재영 외 2005: 356).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의어의 의미확장의 원리를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4) 영상도식(imgae schema)는 반복되는 신체적 경험의 패턴을 통해 얻은 개념이 물리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추상적인 실체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이론이다(Evans 2007/임지룡·김동환 역 2010: 134-136 참고).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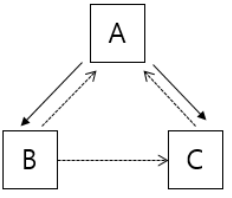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다의어의 의미 확장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알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하고, 4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알다'의 교육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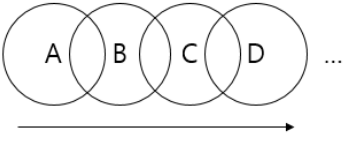
2. 연구 배경과 방법

2.1. 다의어의 의미 확장 원리

하나의 형태에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다의어(polysemous word)라고 한다. 다의어를 구성하는 의미들은 원형적인 의미에서 정도성을 보이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새는 원형적인 새(참새, 까치)와 비원형적인 날지 못하는 새(타조, 펭귄)와 알을 낳지 못하는 새(박쥐)와 같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어휘의 의미도 원형적인 의미에서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며 이들은 하나의 어휘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는 의미망구조와 의미연쇄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임지룡2008: 108-109).



〈그림 1〉 의미 망 구조



〈그림 2〉 의미 연쇄 구조

<그림 1>의 '의미 망(semantic network) 구조'는 'B(원형)'와의 유사성을 통해

www.kci.go.kr

수평적으로 'C(확장)(extension)'된다. 이 구조에서 원형과 확장의 공통성을 추상화한 것이 'A(도식)'이다. 다의어 '죽다'의 예를 (2)에서 살펴보자.

(2) a. 사람이 죽었다.
b.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초가 죽었다/물고기가 죽었다.
c. 애써 피운 장작불이 죽었다.
d. 옷에 풀기가 죽었다.
e.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다라는 의미의 '죽다'는 (2a)의 원형의미에서 (2b) 생명체(동물, 식물)가 죽다, (2c), (2d) 구체물(불, 풀)이 죽다, (2e) 추상적인 대상이 죽다로 확장된다. 다음 <그림 2>의 '의미 연쇄(meaning chain) 구조'는 의미가 연쇄적으로 확장되며, AB, BC, CD는 서로 인접한 용법끼리 의미를 공유한다.

(3) a. 공원 벤치에 앉았다.
b. 그는 후보 선수로서 벤치를 지키는 신세가 되었다.
c. 선수들이 벤치의 지시를 어겼다.

긴 의자를 지칭하는 '벤치'는 (3a)의 원형의미에서부터 (3b)의 '선수 대기소'에서 (3c)의 '감독'으로 점진적인 의미 연쇄가 일어난다. 이렇듯 어휘의 의미는 원형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경험적 지식들의 유사성과 인접성에 의해 확장된다. 이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유사한 사물이나 현상, 사태를 하나의 범주로 해석하려는 인간의 인지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휘의 의미가 확장되는 이러한 양상은 동사의 의미 확장에서도 적용된다. 행위나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는 반복된 행위를 통해 구축된 개념 체계가 의미 확장의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현배(1929/2004: 253)는 움직씨를 '뜻과 꼴이 있는 움직임(有意 有形의 動作)', '뜻은 있으나 꼴없는 움직임(有意 無刑의 動作)', '자연의 작용(일함)', '생물의 모양(狀態)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하위 분류했다. 주지하다시피 사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태와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동사다. 그렇지만 '알다'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기는 하지만 有意 有形의 動作과 같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변화이다. '인지동사(cognitive

www.kci.go.kr

verb)'는 행위 없이 개념화자의 내적 변화를 언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정민(2001: 122)에 의하면 인지(cognitive)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용해서 알고 이해하며 판단하는 등의 사고 작용이다. 그렇다면 인지 작용을 언어화한 인지동사(cognitive verb)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정신적 활동이며 감각과 지각을 통해 습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정현 2019: 114).

장경희(1985: 534)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여기다', '알다', '모르다' 등의 인지동사 중에서 '알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정보나 지식을 가지다]로 파악할 수 있고, 이때 정보란 진리치가 眞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진리치가 眞인 경우나 眞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모두 '알다'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알다'는 개념화자가 경험을 통해 진실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정보를 판단하여 수용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황순희(2010: 385-396)에서는 '알다'를 '정보'의 이동을 통해 [+정보소유], [+정보인출], [-정보인출], [+인출심화]의 자질로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알다'를 정보를 얻는 과정, 정보를 판단하는 과정, 정보를 통해 사실을 예상하고 수용하는 등의 사고 과정을 언어화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알다'는 정보를 얻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정신적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로 정의할 수 있다.

(4) a. 이 규칙을 적용하면 1과 물음표를 더했을 때 7이 나와야 한다는 공식을 알 수 있다. <인터뷰 369 2013년 1월 1일>
b. OO전자 "단순 사무 업무 '로봇'이 알아서 처리한다." <디지털조선 2020년 12월 14일>
c. 가: 현장에 맡겨 놓으시라고.
나: 알았어요. 아까 알아들었어요.

(4a)-(4c)에서 보듯이 '알다'는 (4a) 공식이라는 [지식을 갖추다], (4b)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다], (4c)현장에 맡겨 놓으라는 지시를 [수용하다]를 의미한다. (4a)-(4c)를 통해 '알다'는 정보를 갖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인지 과정에 의해 의미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다의어의 의미 확장과 인지동사의 의미 특성에 대한 이론적

www.kci.go.kr

배경을 바탕으로 동사 '알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내용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2.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양한 패턴 속에서 실현되는 '알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다'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알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말뭉치를 대상으로 '알다'의 사용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이하 <세종>)로 구어 약 80만 어절과 문어 약 100만 어절 구성되어 있다. <세종>에서 '알다'는 구어에서 23,060회, 문어에서 20,643회 출현한다. 이 중 <세종> 구어와 문어에서 각각 500개의 '알다' 용례를 추출하여 사용 패턴과 의미를 분석하였다.[5]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형태 분석은 되어 있으나 단어의 의미 분석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의어 '알다'의 의의(sense)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없으므로, 임의로 추출한 용례를 연구자가 일일이 문맥에 따라 판단하여 의의를 분석하였다.

(5) a. 성 쏘피아 성당을 알려면, 비잔틴제국을 알아야 합니다.
b.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어땠는지 아세요?
c. 그때만 해도 그녀는 한글을 읽을 줄만 알았지, 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능력은 거의 없었다.
d. 지난해 8월 대상문화재에 대한 잠정 목록 제출부터 세계유산 등록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기억나는 일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e.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는 내 알 바 아니고 그저 소리내서 아는 글자나 읽어본다는 투로 말이다.

(5)의 예들은 추출한 용례의 일부이다.[6] (5)의 예를 포함하여 전체 용례의 특

5) 이 연구는 '알다'가 나타나는 모든 패턴과 의미를 계량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의로 구어와 문어 각각 500개의 용례를 분석하여 사용 패턴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www.kci.go.kr

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 (6)과 같다.

(6) a. 문어(0.20%)보다 구어(2.86%)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
b. '을/를 알다', '-(으)ㄹ 줄 알다', '-으로 알다', '-는지 알다' 등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c. '알다'는 '-수 있다', '-게 되다', '-고 있다', '-아야 하다' 등의 패턴과 결합하는 빈도가 높다.

(6)의 특징들을 보면, 먼저 구어에서 더 높은 빈도로 '알다'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어 말뭉치의 규모가 더 큰 것을 고려한다면 '알다'의 사용 빈도가 구어에서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구어에서 사용되는 패턴과 용법을 한국어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목적격 조사를 취하는 'N을/를+알다' 구성이 많았으며 연결어미와 의존명사 구성 중에서 '-는지'와 '-(으)ㄹ 줄'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7] '-줄 알다'의 경우 [능력이 있다]보다 [예상하다]가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8] 그 밖에 '알다'는 '-고 있다', '-아/어야 되다/하다', '-(으)ㄹ 수 있다'와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알다'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과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의 뜻풀이를 참고하였다. 앞서 (6)에서 살펴본 '알다'의 패턴이 두 사전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의미를 풀이하는 순서와 방법 즉 의미의 유연성에 대한 관점은 달랐다.

6) 이 연구에서 지시한 예문은 <세종>의 용례이며, 이 경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일부 예문은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였다.
7) '을/를 알다'의 구성은 목적어(명사) 결합 뿐만 아니라 '줄 알다', '는지 알다'에서도 결합하여 '줄을 알다', '는지를 알다'로 사용된다.
8) 구어에서는 '능력'이 500문장 중 9문장, 예상이 500문장 중 59문장이었고, 문어에서는 각각 30문장 17문장으로 나타나 '줄 알다'는 '예상'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다만, 임의로 선정한 용례에서 분석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

www.kci.go.kr

〈표 1〉 '알다'의 사전 뜻풀이

『표준』	『연세』
① -을, -ㄴ지를, -음을(혹은 -에 대하여) 「1」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2」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다. 「3」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4」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② -을** 「1」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반대말. 모르다 「2」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3」 잘 모르던 대상에 대하여 그 좋은 점을 깨달아 가까이하려 하다. 「4」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소중히 생각하다. 「5」 상대편의 어떤 명령이나 요청에 대하여 그대로 하겠다는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③ -과, -을** 「1」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거나 안면이 있다. **④ -을 -으로, -을 -고** 「1」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기다. **⑤ -으로, -고** 「1」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믿거나 생각하다.	**1 1이 2를 알다** ① (경험, 학습, 정보를 통하여) 모르던 것을 깨닫다. ② (어떤 것을) 이해하는 지식을 가지다. ③ [주로 '-을 줄 알다' 의 꼴로 쓰이어]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④ (어떠한 것을) 이해하다. ⑤ 사귐이 있거나 안면이 있다. ⑥ (바로 판단하여) 의식하다. ⑦ ['~만 알다' 의 꼴로 쓰이어] 가치가 있다고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다. ⑧ [주로 '알아 주다' 의 꼴로 쓰이어] 인정하다. ⑨ ['알 게, 알 바' 의 꼴로 쓰이어] (어떤 일에) 상관하거나 아랑곳하다. ⑩ [주로 '알아서 ' 의 꼴로 쓰이어] 분별하거나 판단하다. **2 1일 2를 3으로 알다** (어떻게) 여기거나 이해하다.

『표준』과 『연세』는 논항 제시 방식이나 제시한 의미와 순서가 서로 차이를 보인다. 가장 원형적인 의미를 『표준』에서는 '정보를 갖추다'로 설정하였지만 『연세』에서는 '정보를 갖추다'는 ②의 의미로 채택하고 '깨닫다'를 원형적 의미로 설정

www.kci.go.kr

하였다. 또 『표준』에서는 논항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연세』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사전마다 단어의 형태적 사용 양상과 의미 용법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표 1>의 내용을 종합하고 2.1.에서 살펴본 '인지동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알다'의 의미를 4가지로 분석해 보았다. 앞서 인지동사로서 '알다'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언어화한 것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알다'는 ❶정보를 얻는 과정, ❷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❸정보의 사실 여부를 의심하고 추측하는 과정, ❹정보를 선별하고 수용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알다'는 다음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7) a. 경험을 통해 정보나 지식을 갖다.
b. 사람과 사물에 관심이 있거나 친분이 있다.
c. 자극과 감정을 느끼다.
d. 사태와 상황을 판단하다.
e. 자신의 기준으로 예상하다.
f. 제안이나 의견을 수용하다.

(7a)-(7c)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의미이고 (7d)-(7f)는 인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행위에 의해 실현되는 의미이다. (7a)는 '알다'의 가장 원형적인 대상인 정보와 지식, (7b)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심은 외부의 정보를 내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c)는 신체적인 감각과 감정으로 정보가 개념화자의 내부에서 발현된다. 한편 (7d)-(7f)는 '알다'라는 인지 행위의 과정이 동기화된 의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알다'의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 '알다'의 의미 확장 양상

3.1. '알다'의 기본의미

이 연구에서 동사 '알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로

www.kci.go.kr

보았다. 의미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를 더 원형에 가까운 의미로 보았다.

(8) a. 주소를 알아야 지번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어떻게 된 내력인지를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b. 성 쏘피아 성당을 알려면, 비잔틴제국을 알아야 합니다.
c. 있잖아요, 캐피탈 대출 이율이 높아요, 보험회사가 높아요? 대출에 대해 좀 아세요?
d. 풍수지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말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e. 그녀는 내가 고아원을 떠날 작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으나, 바로 그날 새벽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f. 사람은 자연과 하나임을 알면서 그 자연을 초월할 줄 알고 불멸을 원하면서도 꼭 죽을 것임을 안다.

(8a)-(8f)는 '알다'의 기본의미인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의 예이다. (8a)는 주소와 지번, (8b)는 성소피아 성당과 비잔틴제국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의미한다. 또한 '대해', '대해서'와 결합하는 형태로도 쓰이는데 (8c)에서는 대출, (8d)는 '풍수지리'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8e)와 (8f)와 같이 명사절의 형태로도 나타나며, (8e)는 '내가 고아원을 떠날 작정이다', (8f)는 '사람은 자연과 하나이다'가 '알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사실이 된다.

3.2. '알다'의 확장의미

이번 절에서는 '알다'의 의미 확장의 양상을 정보와 지식의 유형과 인지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알다'는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언어화한 인지동사이며, 인지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들이 '알다'의 다의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알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지식'의 유형들은 물리적 정보와 신체적 자극, 감정 등이 있으며 정보의 유형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알다'의 의미들이 갖는 관련성을 기반으로 '알다'의 의미와 표현들을 학습한다면 인지적 개연성과 의미적 유

www.kci.go.kr

연성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2.1. 대상의 유형에 따른 의미 확장

'알다'의 가장 기본적인 구문 구조는 목적어를 취하는 'N을/를 알다'이다. 이때 목적어에 해당하는 N은 '정보'와 '지식'의 종류가 된다. '알다'의 대상이 되는 지식과 정보의 종류는 사람, 감각, 감정, 방법 등이 있었다.

먼저 '사람'과 결합하는 '알다'의 예를 살펴보면 (9)과 같다.

(9) a. 나는 영화관에서 우연히 그녀를 알게 되었다.
b. 김씨와 박씨는 나씨에게 자신들이 L양과 아는 사이임을 밝히며 폭력을 휘둘렀고, … .
c. 노를 저어주는 노인에게 엄마가 인사를 했고, 노인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듯 인사를 받았다.
d. 진짜 아는 동생이야?

(9a)-(9d)에서 '알다'의 대상이 되는 '그녀', 'L양', '사람', '동생'은 이들의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교류한 경험을 통해 친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보통 '누구를 알다'의 형태를 취하지만 (9b)와 같이 '누구와 알다'로도 쓰이며 (9c), (9d) 같이 '아는 사람', '아는 동생'의 형태로도 자주 쓰인다. 이렇게 '사람'이 선행되는 경우 '알다'는 [친분이 있다]의 의미이다.

또 '알다'의 대상은 신체의 감각이 될 수 있다. 이때 '알다'는 [지각하다]의 의미가 된다.

(10) a. 술이 좀 늘어야 물 맛을 알지…… 흥, 신문사 십 년에 냉수 맛을 알게 된 것밖에 는 게 무언고?
b. 진구네는 어머니가 팔다 남긴 술안주 회를 자주 먹었기 때문에 진구도 진수도 진숙이도 모두 일찍부터 회 맛을 잘 안다.
c. 나는 이 냄새를 알고 있었다.
d. 밖으로 나와서야 추운 것을 알았다.

(10a)-(10d)에서 '알다'는 신체 감각이 정보가 되어 감각을 [지각하다]를 의미

www.kci.go.kr

한다. (10a)와 (10b)는 음식 고유의 맛이나 미각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10c)에서는 냄새를 느끼는 것, (10d)의 추위를 느끼는 것도 감각을 뜻한다. 이렇게 '알다'는 신체적인 감각을 [지각하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알다'의 대상이 경험에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감각은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식 현상이고, 지각은 감각을 통한 경험에 의해 '앎'의 단계로 가는 과정이며, 인지는 이러한 지각 이후에 이루어지는 판단을 위한 사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변정민 2001: 20).

'감정'도 '알다'의 대상이 되며 '알다'는 감정을 [느끼다]를 뜻한다.

(11) a. 내 마음을 알고 내 사랑을 안다.
b. 사람이 수치를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c. 괴테는,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내 괴로움을 알 것이라 했거니와 …
d. 한글로 씌어진 간판을 보았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11a)-(11d)에서 '알다'는 감정을 [느끼다]의 의미이다. (11a)의 마음과 사랑, (11b)의 수치, (11c)의 그리움과 괴로움, (11d)의 기쁨은 모두 감정이며, '알다'는 감정을 [느끼다]를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도 '알다'의 대상이 된다. '알다'는 관형형어미 '-(으)ㄹ', 의존명사 '줄'과 결합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의미한다. 이때 의존명사 '줄'은 '방법'을 의미하므로 '-(으)ㄹ 줄 알다'는 지식으로서의 방법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능력]을 뜻한다.

(12) a. 심지어 모를 심을 줄 아는 젊은이가 한 동네에 몇이 안 된다.
b.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참으로 남에게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c. 정확한 언어를 쓸 줄 아는 것은 때로 지참금 이상의 재산이 된다.
d.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릴 줄 알아야 한대.

(12a)-(12d)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12a)는 모를 심을 수 있는 능력, (12b)는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 (12c)는 정확한 언어를 쓸 수 있는 능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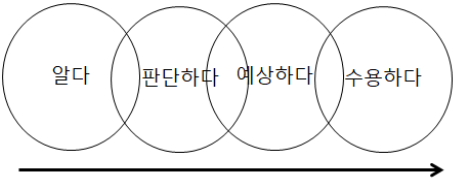
력, (12d)는 옳고 그름을 가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요컨대, ‘알다’는 행위의 대상, 즉 정보와 지식의 종류에 따라 사람과 [친분이 있다], 감각을 [지각하다], 감정을 [느끼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갖추어 [능력이 있다]의 의미로 확장된다.

다의어는 우리의 경험이 동기화되어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인 데로 의미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흘러가다’의 의미는 ‘시냇물’(구체)에서 ‘세월’(추상)로 도출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세월’에서 ‘시냇물’로 도출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임지룡 2018: 135). 즉 ‘알다’의 대상도 개념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얻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정보에서 정보를 몸으로 체득하여 실천하는 방법으로서의 정보로 확장된다. 또한 다의어는 ‘사람>동물>식물>무생물’,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심리적 위치>, ‘공간>시간>추상>’, ‘문자성>비유성>관용성’이라는 경향성을 보이면 확장된다. 따라서 ‘알다’의 대상은 신체적 자극에서 감정적 자극으로, 구체적 정보에서 추상적인 정보로 확장되며 ‘알다’의 의미도 대상에 따라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기존 각주 (9) 삭제)

3.2.2. 인지과정에 따른 의미 확장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다’는 인지과정을 통해 의미가 확장된다. ‘알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보를 판단하고 진위를 예상하거나 예측하고 수용하는 연쇄적 과정이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알다’의 의미 연쇄 구조

‘알다’는 외부의 정보와 지식을 개념화자가 갖추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개념화자가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일, 사실 여부를 예상하는 일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예상하는

www.kci.go.kr

과정은 정보와 사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공유된다. 나아가 정보와 사실을 수용하는 것은 일에 대한 관심과도 연결되어 있다. 즉 '인지'라는 행위는 정보의 생성에서부터 수용하는 과정까지 개념화자의 인지적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지동사 '알다'의 의미들은 이런 과정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알다'의 인지과정에 의한 의미 확장을 [판단하다], [예상하다], [수용하다]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판단하다]의 예를 보이면 (13)과 같다.

(13) a. 형님으로 받들어도 좋다는 허락으로 알겠습니다.
b. 문제는 제 나라의 말을 얼마나 소중히 여히고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안다.
c. 짝을 찾는 인간의 정감을 그들은 가장 순수하고 높고 보람 있는 일로 알았기에 아내가 남편을 혹은 남편이 아내를 잃고 방황하는 것을 인사人事의 가장 슬픈 일로 알았던 것이다.
d. 나머지 일들은 왕형사와 김형사가 알아서 할 것이기에 오반장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곳을 떠났다.
e. 두 번째 왔을 때 다시 그 방을 달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방을 내줬다.
e. 특별히 봐주는 거니까 알아서 해!

(13a)-(13e)에서 '알다'는 스스로 혹은 자신이 [판단하다]의 의미이다. 조사 '-(으)로'와 함께 쓰인 '알다'는 (13a)에서는 허락으로 판단하겠다, (13b)는 제 나라 말을 소중하게 가꾸는 정도에 달렸다고 판단한다의 의미가 된다. (13c)에서도 '알다'는 보람있는 일로 판단한다를 뜻한다. 이지영(2005: 115)은 'NP를 NP로 알다' 구문에서 '알다'는 인식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어 부분적이고 단면적인 인식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개념 화자의 주관을 통해 정보의 일부를 사실로 수용하는 과정, 정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연결어미 '-아/어서'와 결합한 (13d)와 (13e)에서도 '알다'는 [판단하다]를

9) 이지영(2005)에서는 'NP를 NP로 알다' 구문을 '인식적 한계 부여'라고 설명하였고 임홍빈(1974)에서는 [+선택적] 의미자질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로 알다'를 '선택적 정보 수용'으로 보고 '알다'를 정보 수용 과정의 일부인 선택적 판단으로 보았다.

www.kci.go.kr

뜻한다. (13d)는 왕 형사와 김 형사가, (13e)는 방의 주인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두 형사가 판단하여 일하다', '방의 주인이 판단하여 방을 내어주다'를 의미한다. (13f)에서와 같이 명령형으로도 자주 쓰이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 (14)에서 '알다'는 [예상하다]를 의미한다.

(14) a. 그녀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b. 이 동물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또는 해가 뜨는지 전혀 알지 못하므로, 날씨에 따라 누울 생각 같은 것은 하지도 못한다.
c. 바위와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가정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d. 환불 받을 돈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다 하니 "그건 장부 봐야 압니다."
e. 그러니 어떻게 하면 물을 건널 수 있겠는지 아시는 분은 좀 일러 주시오.

(14a)-(14e)에서 '알다'는 연결어미 '-는지'와 결합하여 [예상하다], [예측하다]가 된다.[10] (14a)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고, (14b)는 날씨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14c)는 바위와 물의 무게의 정도, (14d)는 환불 받는 금액, (14e)는 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하거나 예상하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모두 규모나 정도를 예상하거나 정도를 예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는지 알다'는 형태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의문사(어디, 무슨, 얼마)와 결합하여 '얼마나, 어떻게, 누가 -는지 알다'로 쓰인다. 둘째, 부정형인 '지 못하다', '-(으)ㄹ 수 없다'로 쓰인다. 셋째, 선행하는 용언과 시제에 따라에 따라 '-(으)ㄴ지', '-는지', '-(으)ㄹ지'가 쓰이지만 과거와 미래 시제는 '-았/었는지', '-겠는지'의 형태로도 자주 쓰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0) 『표준』에 의하면 '-는지'는 ①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②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하지만 서정수(2006: 379)에서는 '는지'를 '묻다', '알다', '모르다'와 결합하는 간접 의문문의 보문자로 정의하였다. 의문사와 결합한다는 점, 일부 동사(알다, 모르다, 묻다, 궁금하다)와 결합한다는 통사적 제약은 일반적인 연결어미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는지'의 특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 정의에 따라 '연결어미'라고 하였다.

www.kci.go.kr

다음 (15)의 예도 [예상하다]의 의미이다.

(15) a.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
b. 송 선생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줄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고 있었다.
c.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하러 수술을 했겠니, 장장 여덟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니, 목숨은 건졌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갔잖아.
d. 오늘은 곱게 보내지만 한번 더 내 눈에 띄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e. 다 죽었는 줄 알았지.
f. 피란민이라니까 나잇살이나 먹은 어른인 줄 알았다가 겨우 열 살이란 말에 그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해 하는 눈치였다.

(15a)-(15f)에서 '알다'는 의존명사 '줄'과 결합하며 (14)와 같이 [예상하다], [예측하다]를 나타낸다. 선행하는 품사와 시제에 따라서 '-는', '-(으)ㄴ', '-(으)ㄹ'이 수의적으로 결합하지만 과거의 경우 '-았/었는 줄'로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안정아(2005: 138-140)는 의존명사 '줄'이 [사실]을 의미한다고 했다.[11] 그렇지만 '줄'이 '알다'와 결합했을 때 사실성과 비사실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오경숙(2009: 148-149)은 '줄 알다'는 중의성을 갖는 구문으로, '학교 도서관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 줄 알았어요'는 '도서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사실)와 '도서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반사실)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했다. 결국 '알다'는 사실과 반사실에 대한 [예상하다]를 의미하며 (15a)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예상하였는지, (15b)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예상한다를 의미한다. (15c)-(15f)에서도 사실 여부를 예상하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16)에서 '알다'는 인지의 마지막 과정인 제안과 의견을 [수용]하고 [관심]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11) 의존명사 '줄'은 관형절의 [상황]을 의미하는데, [상황]은 문장 차원에서 [사실]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예컨대, '나는 최씨가 죽은 줄 알았다'에서 '최씨가 죽은' [상황]은 '알았다'와 결합하면서 [사실]이 된다(안정아 2005: 138).

www.kci.go.kr

(16) a. A: 도착하시면 저에게 전화주세요.
B: 알겠어요.
b. A: 현장에 맡겨 놓으시라고
B: 알았어요. 아까 알아들었어요.
c. 아무도 그 놈에게 손을 대며 안 돼, 알겠지?
d. 외기러기 짝사랑이라고 흉을 본다기로 그거야 알 바 아니거든.
e. 저의 집이 얼마나 잘살거나 그거야 알 바 아니지마는 대학까지 가려는 생각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16a)-(16c)에서 '알다'는 앞선 제안이나 명령, 의견 등을 [수용하다]를 의미한다. (16a)와 (16b)에서는 도착 후 전화하라는 요청, 현장에 맡겨 놓으라는 요청에 '알겠다', '알았다'로 수용의 의미를 표현했다. '알겠다'와 '알았다'는 특별한 의미 차이 없이 수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화 상황이나 대화 참여자의 관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12] (16c)에서는 의문형 '알겠지?'의 형태로 명령을 주지시키는 의미로 쓰였다. (16d)와 (16e)의 '알 바 아니다'는 [관심]이 없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앞의 상황이나 제안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수용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16d)는 사람이 흉을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16e)는 집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요컨대, 인지과정에 따른 의미 확장에서 '알다'는 [판단하다], [예상하다], [수용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개념화자가 정보를 얻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인지 작용들이 동기화된 것이다.

12) 김성환(2019)에 의하면 '알겠다'와 '알았다'의 사용 양상은 성별, 연령, 친밀도,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한국어 화자들은 대체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할 때 '알겠다'는 대답을 선호한다고 한다. 즉 연령이 높고 친밀도가 높을수록 '알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알겠다'를 선호하며, 보편적으로는 '알겠다'를 선호하는 편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특성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된다.

www.kci.go.kr

4. 다의어 '알다'의 교육 내용

4.1. '알다'의 교육 내용

교육용 어휘가 교육에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 단어들을 수준별로 정리하여 등급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김광해 2003: 261). 따라서 모든 어휘 교육은 학습 단계가 계획 되어야 하며 의미 교육도 학습 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등급화하는 것으로 '알다'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Lighrbown & Spada(2006)는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내용의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어적 복잡성, 의미적 투명성, 빈도 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어휘가 가진 의미의 투명성(transparency)은 학습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Martiez & Schmitt(2012: 304-305)는 비유적이고 덜 투명한 표현은 능숙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더 어렵게 여길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형태적인 복잡성도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 된다. 한편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어휘는 중요하므로 한국어 학습자들도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빈도가 높은 어휘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 맥락이나 화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1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알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등급화하는 데에 고려할 것이다.

(17) a. 의미의 구체성과 투명성의 정도
b. 결합하는 단어의 등급
c. 형태적 특성
d. 화용적 특성

먼저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알다'는 정보의 유형과 인지과정에 의해서

13) Curse & Croft(2003/김두식·나익주 역 2010: 179-181)는 의미 해석에 영향을 주는 언어적 맥락에 대해서 이전의 대화, 문장 내의 단어들, 담화의 유형이 있다고 했다. 그 밖에 물리적 맥락, 사회적 맥락, 지정된 지식 등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제약이 된다고 했다.

www.kci.go.kr

의미가 확장된다. '알다'의 기본의미는 [정보를 갖추다]이며 정보의 유형에 따라 의미가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알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은 사람, 감각, 감정, 방법이었으며 각각 [친분이 있다], [지각하다], [느끼다], [능력이 있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17a)와 같이 '알다' 의미의 추상화 정도와 (17b)의 결합하는 어휘의 등급이 '알다'의 의미 제시 단계를 설정하는 데에 고려 되어야 한다. (17c)의 형태적 특성은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문법적 정보가 되므로 등급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것을 알다', '(으)ㅁ을 알다', 'N을/를 알 수 있다' 'N을/를 알아야 되다' 등의 형태는 명사 구성에 비해서는 복잡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보다는 중급·고급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동사로서 '알다'는 언어 보편소(universal human concept)적 성격을 보이지만 실제 표현에서는 한국의 사회·언어 문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있다.[14] 예컨대, '알 바 아니다', '알아서'와 같은 표현들의 경우 대화의 상대, 상황, 억양 등에 따라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17d)의 화용적 특성도 등급화에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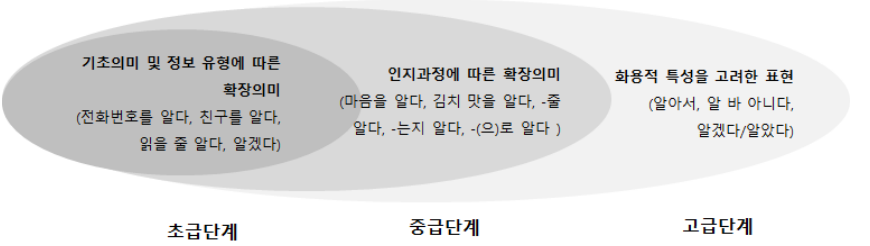
4.2. '알다'의 단계별 교육 내용

4.1에서 논의한 등급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다의어 '알다'의 교수·학습 내용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다의어 '알다'를 교수·학습할 때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모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문법적 능력에 따라 의미와 형태를 확장하여 제시해야 하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경우 화용적인 의미를 함께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급·중급·고급 단계로 나누어, '알다'의 의미 교육의

14) Celce-Murcia(2007: 45-50)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사회-문화적 능력(social-cultural competence), 언어적 능력(linguistic competence), 상호작용 능력(interaction competence), 정형표현 능력(forumlaic competence), 전략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설명하였다. 즉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전략적 능력 등 언어 외적 능력도 필요하다.

www.kci.go.kr



〈그림 4〉 '알다'의 단계별 교육 방안

내용과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2.1. 초급 단계의 '알다' 교육 내용

초급에서 '알다'의 교육 목표는 기본의미를 알고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활용하여 확장의미를 교수·학습하는 것이다.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구문형태인 'N을/를 알다'에서 [정보를 갖추다]를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친분이 있다]도 교수·학습할 수 있다. 한송화 외(2015)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어휘는 초급 어휘에 포함되며 '알다'된다. 주로 '아는 친구', '아는 사람', '아는 선생님' 등으로 사용되는데, 일상생활과 한국어 학습 환경을 고려한다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의미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알겠다'도 '네, 알겠어요'의 형태로 초급에서 학습할 수 있다. 방법을 뜻하는 의존명사 '줄'과 결합하는 '-(을)ㄹ 줄 알다'도 초급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알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다]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다'의 의미 교육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초급 단계의 '알다' 교육 방안 예시

학습 목표	'알다'의 기본의미(①)를 알고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의미(②, ③)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내용	**N을/를 알다** ① [정보와 지식을 갖추다]

www.kci.go.kr

	A: 철수 씨, 민수 씨 전화번호를 알아요? B: 네, 민수 씨 전화번호를 알아요. 010-123-4567이에요. A: 고마워요. ② 사람과 [친분이 있다] A: 철수 씨, 영희 씨를 알아요? B: 네, 영희 씨와 알아요. 영희 씨는 아는 친구예요. ③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갖추어 [능력이 있다] A: 철수 씨, 수영할 줄 알아요? B: 네, 저는 수영할 줄 알아요.

초급 단계에서는 ‘알다’의 기본의미인 [정보와 지식을 갖추다]를 학습하고 일상에서 자주 쓰는 ‘아는 N’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확장의미인 [친분이 있다]를 교수·학습할 수 있다. 또한 ‘사람’과 결합하여 [친분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N와/과 알다’, ‘아는 N’과 같은 패턴으로 자주 사용됨을 함께 제시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능력]을 의미하는 ‘-(으)ㄹ 줄 알다’도 ‘알다’의 대상으로서의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알다’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2.2. 중급 단계의 ‘알다’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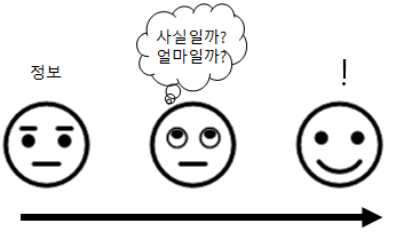
중급 단계의 ‘알다’ 의미 교육의 목표는 초급 단계에서만 학습하던 ‘알다’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있어 단어의 의미 학습은 이미 모국어에서 구축된 개념들을 재구조화하여 이해하는 과정이다. 특히 동사의 의미는 한국어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행위의 대상과 변화의 과정 등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의미를 재구조화하는 데 효율적이다.

중급 단계에서는 ‘알다’의 대상 어휘를 ‘감각’과 ‘감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초급에서 학습하였던 구체적인 ‘알다’의 대상에서 [지각하다], [느끼다]로 의미를 확장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한송화 외(2015)에서도 ‘아픔’, ‘괴로움’ 등의 감정 어휘와 ‘단맛’, ‘매운맛’ 등의 감각 어휘들은 중급 어휘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 감각을 [지각하다], 감정을 [느끼다]의 의미는 중급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다.

www.kci.go.kr

또 [판단하다], [예상하다]의 의미도 중급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이것은 '-는지 알다', '줄 알다'와 같이 표현문형의 형태를 중급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이런 표현문형들을 '알다'의 확장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김중섭 외(2017)의 등급별 기능에 따르면 초급에 비해 더 상세한 태도 표현과 감정 표현이 중급 단계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 어미나 어휘로 학습했던 태도와 감정 표현을 중급 단계에서는 표현 단위로 학습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다'의 의미 교육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중급 단계의 '알다' 교육 방안 예시

<table>
<tr><td>학습 목표</td><td>인지 과정과 관련된 '알다'의 확장의미를 이해하고, 해당 의미에 적합한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다.</td></tr>
<tr><td>학습 내용</td><td>V/A는지 알다 [예상하다]
① 상황 1
A: 철수 씨,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B: 9시에 시작해요.
② 상황 2
A: 저 영화 재미있을까요?
B: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포스터만 봐도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림 5> '알다' 의 과정</td></tr>
</table>

중급 단계에서는 어휘와 문법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표현문형으로 제시되는 '-는지 알다'를 '알다'의 확장의미인 [예상하다]로 교수·학습할 수 있다. <표 3>의 <그림 5>와 같이 정보를 얻고 수용하는 '알다'의 인지과정을 설명하고 과정

www.kci.go.kr

중 일부인 [예상하다]를 제시할 수 있다. 기본의미로서의 '알다'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임을 주지시키고 행위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통해 설명한다면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 의미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15] 그리고 의문사(무엇, 어떤, 얼마)와 결합하거나 '는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적 특징도 함께 제시한다. '-줄 알다'도 '알다'의 인지과정 중의 일부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상하다]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또 정보 유형에 따른 확장의미는 4.2.1.의 초급 교육 예시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2.3. 고급 단계의 '알다' 교육 내용

고급 단계에서의 목표는 기본의미를 담화와 텍스트 장르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화용적 의미를 고려하여 '알다'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급 단계에서는 기본 구문 형태에서 확장된 '-(으)ㅁ을 알다', '-것을 알다', 'N을/를 알 수 있다', 'N을/를 알아야 되다'를 제시할 수 있다. 기초어휘는 초급에서 기본의미가 제시된 후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 확장의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의적 용법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텍스트나 담화에서 사용되는 표현들도 함께 제시하면서 다양한 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 구문 형태를 보이지만 명사형어미 '-(으)ㅁ'이나 의존명사 '것'을 학습한 후 이를 활용하여 '-(으)ㅁ을 알다'나 '-것을 알다'를 학습할 수 있다.

김중섭 외(2017)에 따르면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공식적인 맥락에서 격식을 갖추어 의사소통할 수 있고, 한국어의 전형적인 담화·텍스트 구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상황 맥락을 파악해서 사용해야 할 '알 바 아니다', '알아서' 등의 표현을 제시할

15) Tyler et al.(2011)은 make, bake, sew, allow, permit 등의 전이동사의 구문적 특징을 움직임, 과정 등을 포착한 시각자료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였고, 비교 집단은 전통적인 학습자 집단으로 나누어 학습 효과를 실험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후속검사에서는 구문적 특징을 제공받은 집단에서 훨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동사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학습자들의 학습에 더 장기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수 있다. ‘알 바 아니다’의 경우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부정적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알아서’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화의 상대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 고급 단계의 ‘알다’ 교육 방안 예시

학습 목표	‘알겠어’, ‘알 바 아니야’등과 같은 패턴에서 사용되는 ‘알다’의 의미확장을 이해하고, 이를 화용적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알 바 아니다[관심을 갖다]** ◎ 토론내용: 다음 표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상황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1) 네가 알 바 아니야. 예 2)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철수 씨가 알 바가 아니에요. 예 3) 그건 네 일이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 어떤 상황일까요? -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듣거나 말한 적이 있어요? -‘알 바 아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관용적인 표현을 보고 표현의 의미와 특성을 토론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상대를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알 바 아니다’를 들었거나 사용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표현의 의미를 토론하고 ‘알다’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알다’의 기본의미에서부터 확장의미의 원리를 토론하고 한국어의 ‘알다’와 모국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알아서’, ‘알겠다’와 ‘알았다’를 사용하는 상황을 토론하고 모국어와 비교하여 언어 문화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www.kci.go.kr

5. 마무리

지금까지 다의어 ‘알다’의 의미 확장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알다’는 인지동사로 물리적 행위나 구체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동사이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념 화자의 내면에서 인지적 변화를 겪는 것은 일반적인 동사와 다르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동사 ‘알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과 ‘알다’의 인지과정을 통한 의미 확장을 설명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알다’는 기초어휘로 초급 단계에서만 학습하고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는 확장된 의미를 학습하지 않아 학습자들이 잘못 쓰거나 어려운 어휘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초어휘일수록 다의어가 많으므로 기초어휘의 다의성을 연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세종> 구어와 문어에서 ‘알다’ 용례를 검색하여 각각 500개의 용례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용례는 『표준』과 『연세』의 뜻풀이를 종합하여 여섯 가지 의미들로 분류하고 의미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았다.

셋째, ‘알다’의 의미는 동사 ‘알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정보를 갖추다], 감각을 [지각하다], 감정을 [느끼다], 사람과 [친분이 있다], [능력이 있다]의 의미로 분석했다. 인지과정에 따라 [판단하다], [예상·예측하다], [수용하다]의 의미로 분석했다.

넷째, 분석한 ‘알다’의 의미를 학습 단계별 교육에 적용하고 예를 제시하였다.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의미인 [정보를 갖추다]와 함께 정보의 유형에 따른 의미 [친분이 있다], [능력이 있다]를 학습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급에서는 중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감정과 지각 어휘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지각하다], [느끼다]를 제안하였다. 또 [판단하다], [예상하다]의 의미도 학습자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다. 고급 단계에서는 ‘알아서’나 ‘알 바 아니다’와 같이 화용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표현을 제안하였으며 기본의미 중에서 형태적으로 복잡한 유형들을 학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알다’의 다의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알다’의 반의어인 ‘모르다’에 대한

www.kci.go.kr

분석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모르다’는 기본의미뿐만 아니라 ‘-(으)ㄹ 줄 모르다’, ‘-는지 모르다’와 같이 ‘알다’와는 반의관계에 있는 어휘이며, ‘얼마나 -지 모르다’나 ‘몰라몰라’와 같이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쓰인다. ‘모르다’의 다의분석을 통해 한국어 인지동사의 다의체계를 규명할 수 있고 한국어 다의어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아쉬움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알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강현화,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2011, 453-479쪽.

고경태, 「다의성 동사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9, 이중언어학회, 2008, 1-21쪽.

김광해, 「국어교육용 어휘와 한국어교육용 어휘」,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2003, 255-291쪽.

김성환, 「한국어 ‘알겠다’와 ‘알았다’의 대답 방식에 관한 연구-사회언어학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한민족어문학』 73, 한민족어문학회, 2019, 5-34쪽.

김 용, 『개념적 은유 기반의 한국어 동사 의미 교육 연구』, 201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아, 「다의어 ‘맛’의 의미 고찰」,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2021, 203-232쪽.

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연구』, 2017, 국립국어원.

문금현, 「한국어 다의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67-89쪽.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단의어 학습 방안-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2006, 143-177쪽.

변정민, 『국어의 인지(認知) 동사 연구: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2001,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수, 『국어문법』, (1994/2006), 한세본.

심혜령·문정현, 「한국어 다의어 의미별 등급화 연구-‘보다’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23, 한국문법교육학회, 2015, 125-148쪽.

안정아, 「의존 명사 ‘수’와 ‘줄’의 의미 연구」,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2005, 121-145쪽.

오경숙, 「‘줄 알다’, ‘줄 모르다’와 사실 인식 표현」,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 의미학회, 2009, 143-161쪽.

오현정, 「동사 ‘걸다’의 인지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 의미학회, 2010,

www.kci.go.kr

141-168쪽.
이민우,「의미 확립 단계를 이용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언어학연구』22, 한국중원언어학회, 2012, 163-177쪽.
이유경,『한국어 어휘의 의미 교육 방안-동사를 중심으로-』, 2011,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영,「認識의 관점에서 본 '알-'의 意味와 統辭的 특징」,『語文硏究』33-4, 한국어문연구회, 2005, 109-134쪽.
이충우,「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국어교육』8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4, 19-39쪽.
임지룡,「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언어학』18, 한국언어학회, 1996, 229-261쪽.
임지룡,『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2008, 한국문화사.
임지룡,『한국어 의미론』, 2018, 한국문화사.
임홍빈, 「{로}와 선택의 양태화」,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4, 143-159쪽.
장경희,「國語의 認知樣態」,『韓國學論集』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5, 523-534쪽.
장지수,『한국어 교육을 위한 동사 '나가다'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2021,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수진,「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문학과 언어』31, 문학과언어학회, 2009, 9-54쪽.
조남호,『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2002, 국립국어원.
최현배,『우리말본』, 1929/2004, 정음문화사.
한송화 외,『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2015, 국립국어원.
한정일,『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1999,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재영 외(2005),『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홍정현,「러이사어 인지동사의 담화화용적 기능」,『유럽사회문화』22,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113-141쪽.
황순희,「인지동사의 의미분류와 어휘의미망 표상」,『언어연구』26-2, 한국현대언어학회, 2009, 373-406쪽.
Celce-Murcia, M, Rethinking the rol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language teaching, In Alcón, E. & Coperías MJ, *Intercultural Language use and langauge learning*, 2007, Springer: Netherlanfs.
Croft, W. & D. A. Cruse,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두식 · 나익주 옮김.『인지언어학』, 2010, 박이정.)
Evans, V. & M. Green,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2006,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 · 김동환 옮김,『인지언어학 기초』, 2008, 한

www.kci.go.kr

국문화사.)

Evans, V, *A glossary of Cognitive Linguistics*, 2007, The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2010, 한국문화사)

Lewis, M, *The Lexical Approach*, 1993, (김성환 역. 『어휘접근법과 영어교육』, 2002, 한국문화사.

Lewis, M,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lexical approach, In Coady, J. and T. Huckin(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1997, pp255-2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ghtbown, P. & N. Spada, *How languages are learned*. 2006. Oxford: Oxford Universitu Press.

Martiez, R. & M. Schmitt, *A Phrasal Expressions List*, Applied Linguistic, 2012, pp299-320.

Sweetser, E,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1990, Cambrige university press. 박정운 외 옮김,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의미 구조의 은유적 문화적 양상』, 2006, 박이정.

Tyler, A., Ho, V. & Mueller, C, *Using cognitive linguistics to teach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2011. Paper presented at AAAL annual conference, Chicago.

www.kci.go.kr

■ Abstract

The meaning of polysemous word *Alda* and Methods for its Korean Education

Kim, Jung-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conten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analyzing the polysemous usage of '알다[*alda*]'. The study viewed '알다' as expanding in meaning through the objects and processes of the behavior. Most fundamentally, '알다' exhibits the composition 'N을/를 알다', and the objects corresponding to N includes information, factors, people, emotions, and senses. Furthermore, as cognitive behavior, '알다' acquires and determines information through outside stimuli, and goes through a process of accepting information through doubt and prediction. Through these series of cognitive behavior processes, the polysemies of '알다' expand with flexibility to each other. The nature of '알다' serves as an important method of explanation for learner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are able to systematically learn by explaining the expression items '-는지 알다', '-(으)ㄹ 줄 알다', and '-는 줄 알다', presented with a focus on grammatical elements such as '-는지' and '줄', through polysemous usage. Moreover, '알다' is frequently used in idiomatic expressions such as '알겠다', '알아서', and '알 바 아니다', and thus, if teaching and learning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polysemous usage of '알다', its cognitive probability and semantic flexibility is capable of increasing the effects of learning.

Keywords

polysemous word, *alda*(know), cognitive verb, Korean education, pattern

www.kci.go.kr

접 수 일 : 2021년 8월 26일
심사기간 : 2021년 9월 2~23일
게재결정 : 2021년 9월 27일 (편집회의)

www.kci.go.kr